

이재상

박 사 형법

진도별모강

1.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중심으로 반영한 문제구성
2.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3. 10년간 사법시험 및 최근 5년간 법원 행정고시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4. 사례형 출제포인트 → 채점포인트 → 답안작성법으로 연계되는 해설강의
5. 2017년 9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일 정

2017. 10. 9(월) ~ 10. 25(수), 총 10 회, 월~금, 오전, **일정변경유의**
(법전협 모의시험 기간 10. 20(금) ~ 10. 24(화) 강의 없음)

시험 오전 8시 ~ 9시 30분

강평 오전 9시 45분 ~ 12시 30분

교 재

-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해설 (제공)
 - + 2017년 제1,2회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사례형 해설(제공)
 - + 실제 답안 분량의 '실전답안' (제공)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의 분석 및 향후 전망**1. 선택형 문제**

-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0문제(25%),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2문제(30%)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5회 변호사시험 내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0문제, 각론 6문제, 총각론을 결합한 유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형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회 변시 보다는 이론문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게 판례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실무이론인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영역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추출해야 하는 쟁점들이 그대로 지문화 되는 방식이어서 사례형 문제를 잘 푸는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착오영역에 관한 쟁점을 폭넓게 물어 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시 제 시간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 변시를 6회 동안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여타 국가시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6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며,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 2016년 법전협이 주최한 전국모의고사와 연계된 판례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외에도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출제된 판례지문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변시를 대비해서는 위의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형법 고득점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2016년도 최신 판례는 그리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지난 1~4회 시험들에 비하여 5회 시험부터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2. 사례형 문제**

-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난 제4-5회 시험에 비하여 형법 배점이 제2문에서 10점이 늘어나면서 형법사례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 제1문에서 ‘공사대금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위가 횡령행위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인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각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사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사안은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사례해결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공범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제3회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할 만한 부분은 범인이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판례와 다수설이 대립하는데, 이 부분을 비틀어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가를 출제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의 사실관계를 반대로 물어볼 때 법리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데 판례와 학설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 그 외에도 환전통화의 장물성과 권리자가 절도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가 출제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행위자의 죄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부작위범과 관련지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와 자동차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오토바이 절도의 가수시기, 공문서부정행사의 성부, 예비의 중지의 인정 여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그리고 제1회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형 문제의 주요 특징은 ① 제1문과 제2문 모두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을 골고루 안배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고 ②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쟁점이 2개나 출제되었으며 ③ 기출쟁점이 중요쟁점으로 또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④ 특히 지난 제1-4회 시험에서는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회 시험부터는 쉽지 않은 내용의 총론의 쟁점들이 전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그리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반대로 물어보거나 변형하여 물어봄으로써 응용력을 높이는 쟁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이번 제6회 시험은 문제의 완성도와 난이도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수험생들이 아주 고민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
3. 이후로의 형사법 공부방법

-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해보다도 사례형 문제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적절하게 엮어서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한층 더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을 향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1. 선택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선택형 문제는 20문이 매일 출제됩니다.
- ② 모든 선택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등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최근 변사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사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됩니다.
 - *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도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 *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 *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 * **2016년 8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 ③ 선택형 이론문제를 위한 최적화된 형법이론을 모두 점검할 것입니다.
 -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변사나 사시의 이론문제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에 최적화된 이론문제를 필요 최소한의 분량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④ 모든 기출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변사, 사시,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시 등의 기출표시를 하여 출제지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출표시는 누적된 만큼 그대로 표시됩니다. 누적된 기출표시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⑤ 매일 변사나 2017년도 법전협 모의고사 제1, 2회에서 출제된 선택형 문제를 해설과 함께 문제 뒷부분에 수록하겠습니다.
 - 회차 별로 5~8개 정도의 문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 보게 되면 실전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 ⑥ 2017년 법원 행정고시 객관식 문제에서는 2017년 최신 판례가 예년 보다 훨씬 많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함께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2. 사례형 문제(100점 기준) 출제 및 구성

- ①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이론체계를 머리 속에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가능케 하여 변사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형법공부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제5회 변사에서 모든 기술쟁점들을 100% 적중함으로써 그 수험적합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②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하여 반드시 합격하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 ③ 최근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출제유형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과 그것이 압축된 실전답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풍부한 내용고찰과 아울러 실제 답안지에 기입할 적정량의 답안내용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④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통합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무려 10문제나 출제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문제는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그런데 통합형 문제는 그 본질이 객관식 사례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② 선택형 20문 중 매일 2~3 문제는 객관식 사례로 출제하여 통합형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강의를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4.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의 학습

- ① 선택형 문제와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법전협 모의고사는 사례형 문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 ② 참고로 2015년 제1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3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가 출제되었습니다.
- ③ 물론 이 쟁점들은 변사 5회 시험에서 사실관계만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 ④ 2017년도 법전협 제1, 2차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해설을 4차례에 걸쳐서 모두 제공해 드리고, 강의시간에도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 의 진 행

1. 강의는 문제에 대한 강평 및 해설강의로 진행됩니다.
 -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쟁점과 학설의 대립을 간단명료하게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개별적인 총각론쟁점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형법이론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형법강의를 할 것입니다.
2. 형법체계론의 확실한 정립을 목표로 선택형 문제의 중요지문 위주로 해설하면서 그 의미내용을 익히고, 문제풀이방식을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문제와 관련하여는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이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가를 연습하고, 이를 효율적인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및 강의진도
1	10/9(월)	죄형법정주의,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과실범
2	10(화)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1)
3	11(수)	책임론(2), 실행의 착수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4	12(목)	공범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5	13(금)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죄수론, 형벌론
6	16(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7	17(화)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8	18(수)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9	19(목)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10	25(수)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선택형, 사례형 문제 강의진도는 동일합니다.

※ 사례형 문제의 진도범위는 누적됩니다.